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이 한국 교회에 주는 함의-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의 갈등 전환 모델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the Northern Ireland Peacebuilding Process for the Korean Church: Focusing on John Paul Lederach's Conflict Transformation Model

강석분 (Suk-Boon Ka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rn Ireland through the lens of John Paul Lederach's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and explores its applicability to the Korean church's role as a mediator for peace. It examines how churches and mediators in Northern Ireland, shaped by religious identity, engaged in relational restor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thno-political confli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ological and practical pathways through which the Korean church can act as a public mediator amid the realities of national division and escalating ideological polarization. Rather than treating conflict as a short-term problem to be resolved, the research adopts Lederach's perspective that frames conflict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relationships, structures, and narrativ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church can serve as a theologically grounded agent of reconciliation by embracing participatory leadership,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and dialogue-based platforms. Ultimately, it suggests that such initiatives can enable the church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realization of positive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Conflict transformation, The Korean church's role as a mediator for peace, peacebuilding, Transform relationships & structures,

* 2025년 5월 2일 접수, 6월 2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석박사과정수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의관 404호, taemann1968@naver.com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남남갈등과 이념적 대립, 그리고 정치적 분열로 인해 심층적인 사회적 균열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의 여러 영역을 넘어 교회 공동체 내부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교회 내에서도 대립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신앙과 무관한 정치·사회적 성향에 따라 구성원 간 분열과 불신이 증폭되며, 이는 교회의 본래 연합과 화합의 사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가 처한 위기이자 도전으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신뢰를 새롭게 고민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념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근본적 과제로 진단된다. 역사적 경험과 이념적 분화, 지역·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열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우며, 보다 심층적인 치유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기존의 영적 역할을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과 화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분열된 공동체를 치유하고 화평을 증진하는 공동체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예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교훈하셨듯이(마 5:9), 교회는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화해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북아일랜드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교회가 수행한 중재자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오랜 종교·이념 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가 갈등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중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북아일랜드 교회협의회와 코리밀라(Corrymeela) 공동체 등은 중립적인 대화 공간을 제공하여 분쟁 당사자 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위해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¹⁾의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한다. 레더락은 갈등을 단순한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적·구조적·문화적 차원에서 전환을 위한 창조적 기회로 이해한다. 그의 관점은 갈등으로 인해 손상된 인간관계와 불평등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레더락의 갈등 전환 관점을 통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심화된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화해와 연대를 중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즉, 갈등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변혁의 기회로 이해하는 관점이, 한국 교회가 분열된 사회에서 화평의 창조적 중재자로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갈등 전환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화해 사역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실

제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해와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갈등 전환 실천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탐구해 나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분석 틀-존 폴 레더락의 갈등 전환 개념

‘평화 구축(Peacebuilding)’이라는 용어는 국제 평화학의 창시자이자 노르웨이 사회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1975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이다. 갈통이 제안하기 전까지는 평화 구축이 갈등 해소 혹은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개념화되지 못했다(김병로, 2014: 9). 평화 개념을 단순한 전쟁의 부재로 보지 않고, 평화를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본 소극적 평화와 불평등 및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한 상태로 본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개입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만들기(peacemaking), 평화세우기(peacebuilding)의 세 수준으로 평화 구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Galtung, 1969:167-191). 갈통의 평화 구축 개념은 갈등 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으로, 장기적이며 포괄적 사회개혁으로서의 평화 구축에 집중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탈냉전 이후 민족과 종교 전쟁으로 대량 학살과 살상이 자행되는 분쟁에 대한 유엔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메노나이트 대학의 정의평화구축센터(Center for Justice and Peacebuilding, CJP)에서 활동하는 제인 도처티(Jayne Docherty) 교수는, 이러한 평화 개념이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도처티는 특히 유엔과 국제기구, NGO 등에서 사용되는 평화 구축 개념이 대부분 분쟁 이후의 재건(reconstruction)과 제도적 안정에 국한되고 있으며, 갈통이 강조한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이론의 직접적 적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병로, 2014: 9). 그녀는 ‘사후적·제도 중심적 평화 구축’ 개념이 현장에서 주로 갈등 이후의 복구와 제도 안정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보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평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유엔과 국제 평화기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NGO 활동가들 사이에는 평화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갈등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평화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평화 구축 학자 존 폴 레더락의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개념의 이론화로 이어졌다. 레더락은 단기적 위기 해결이나 제도 복구에 머무는 기존 평화 구축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갈등을 단순한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변화의 기회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갈등은 억압받던 목소리가 드러나고, 공동체 내부의 불균형과 구조적 불의가 노출되는 계기이기에, 이를 통해 오히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잠재력을 지닌다(Lederach, 김복기·허윤정 역, 2024: 15-19).

레더락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 구축이란 갈등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 접근 방식, 단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Lederach, 2012: 43)고 한다. 이는 평화 조약 이전과 이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평화 구축의 핵심 활동은 갈등 전환이라고 본다. 갈등 전환은 구조, 관계, 개인, 문화의 네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비폭력적 메커니즘을 통해 평화적 변화로 이끄는 창의적인 대응 과정으로 이해된다(Lederach, 김동진 역, 2012: 122-124).

레더락은 이전의 연구와 다른 시선으로 갈등을 기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한다(Lederach, 박지호 역, 2018 : 11). 그는 갈등 전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 곧 평화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기존 프로그램 중심 접근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그는 갈등 해결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갈등 전환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있다. 레더락은 갈등 해결이 때로는 강자가 약자를 회유하는 전략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Lederach, 김동진 역, 2012: 11). 그러므로 그는 ‘해결’이라는 용어보다 ‘전환’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갈등 전환은 갈등이 인간관계 속에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중요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본다. 갈등 전환은 갈등 자체를 단순히 관리·통제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갈등 집단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갈등 전환 이론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본다. 갈등 해결은 단기적이며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만, 갈등 전환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사회 구조와 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러므로 그는 갈등 전환을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이는 사회의 건설적인 변화를 이끄는 비폭력적 생활방식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갈등 전환의 틀에서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갈등이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가?” 둘째, “갈등을 통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은 갈등을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네 범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첫째, 그는 갈등이 구조적(structural), 관계적(relational), 개인적(personal), 문화적(cultural) 차원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평화구축은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한 전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갈등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고위층(top-level), 중간 수준(middle-range), 풀뿌리(grassroots) 세 수준의 지도자들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설명한다. 셋째, 그는 평화 구축이 단기적 위기 대응이나 표면적인 합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큰 그림을 위한 렌즈(lens for the big picture)’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구조와 관계를 전환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큰 그림’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구조(sustainable structure), 정의로운 관계(reconciled relationship), 그리고 **문화적 포용(cultural inclusion)이다.

레더락의 통합적 모델은 ‘한국 교회 내(內) 중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정치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갈등을 ‘전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교회가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며 정의로운 구조를 회복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교회는 단지 영적 위안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서, 비폭력적 삶의 방식과 화해의 실천을 구현하는 평화 구축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2. 교회의 평화와 중재 역할을 위한 화해의 개념

‘화해’(reconciliation)라는 용어는 단일한 정의로 포착되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화해’는 단지 종교적 개념을 넘어, 상호 공존이 필수적인 시대적 조건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차이의 인정, 관계성의 회복, 연대의 구축이 평화로운 공존의 핵심으로 부각되며, 화해는 그 중심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김경은, 2013: 449-450). 화해는 본질적으로 관계성과 긴밀히 연결되며, 이는 단순한 분쟁 종결이 아니라, 깨진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의 창조, 공동체의 재구성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 단위로 확대되며, 갈등 해결이 요청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화해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화해’는 평화, 용서, 정의, 치유, 회복, 구원 등 여러 유사한 의미의 개념들과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용어 중에서도 화해와 제일 유사한 단어로 ‘כָּפַר(kāpar)’라는 이러한 화해 개념의 기반을 이루는데, 쾰러(Koehler)와 바움가르트너(Baumgart-

ner)는 이 단어를 ‘덜다’로 해석해서, 카파르를 피엘 형(강조형)인 ‘카페르’로 이해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자기에게 기울이게 하도록 그 사람의 얼굴을 선물(gift)로 덮는 것으로 표현했다.

웬함(Wenham Gordon J.)은 죽을 형벌에 받을 사람이 죽음을 대신해서 내는 ‘속전(贖錢, money for the redemption)’의 의미로 해석한다. 웬함의 제자 키우치(Kiuchi Nobuyoshi)는 ‘화목제물(fellowship offering, peace offering)’의 의미까지 확장된다고 본다(강문규, 2016: 470). 이처럼 구약적 맥락에서 화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의적 행위로 이해되며, 이 개념은 점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중심 주제로 부각되었다. 화해는 관계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으로 관계의 회복, 새로운 관계 맺음,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화해 개념의 신학적 정점은 칼 바르트(Karl Barth)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화해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교회의 소명이자 임무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과의 화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인간을 초청하는 것이 되다는 것이다(Karl Barth, 1956: 146-147).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9).” 라는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 화해는 구원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사명은 화해자가 되는 것이라 본다.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도 포옹의 드라마를 통해 타자와의 화해를 설명한다. 그는 궁극적인 목적이 화해가 아니라면, 과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자유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유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며, 사회적 행위자들의 관계를 이데올로기화하고 그들의 반목을 영속화하는 구조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포옹의 현상학’으로 구체화하며, 포옹은 ‘타자 안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포옹을 자아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인간 관계의 전 영역에 대한 ‘환유’로 본다. 이는 신체적 포옹 그 자체가 아닌, 자아와 타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포옹은 ‘팔 벌리기’로 타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기다리기’는 타자의 응답이 없어도 타자를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팔 모으기’로 상호성이 없는 포옹은 안 되며,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팔 벌리기’는 타자와 나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행위로, 볼프는 이를 ‘포옹의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Volf, 박세혁 역, 2021: 222-232).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접촉의 부재에 의해 지탱되는 적대감의 부

재를 넘어서, 이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과의 사귀를 포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화해 사역을 확대해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으로 이어가는 것이 화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서보혁은 화해의 유형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서보혁, 2023: 35-39).

첫째, 분쟁의 성격을 반영한 국제적 화해와 국내적 화해. 둘째, 화해를 절차적·물질적·관념적 화해. 셋째, 절충적 화해. 넷째, 내면적 화해와 사회적 화해, 다섯째, 내면적 일방적(선제적) 및 쌍방적 화해를 설명한다. 이 화해 유형에서 넷째 유형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즉, 소속 사회 내 갈등 해소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때 화해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신·구교 두 집단 종교 분쟁으로 알려졌지만, 두 집단 간의 오랜 불신, 정치적·사회적 불평등, 정체성의 문제가 배경이었던 복합된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서보혁은 종교인들의 화해 노력이 단지 내면적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실현된 사례로 1978년 제정된 북아일랜드 통합 교육법('Education (Northern Ireland) Act 1978')을 제시한다. 북아일랜드 통합 교육은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을 가진 어린이, 부모, 교사들이 아동 교육을 위해 한곳에 함께 모이게 하는 제도로, 모든 문화적·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교육 형태이다.

이 통합 교육은 1974년부터 ACT(All Children Together) 운동으로, 북아일랜드의 학교에서 인종 분리에 반대한 학부모들의 시위와 노력의 결실이었다. 처음에는 잘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81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비종파 학교인 라간 칼리지(Lagan College)가 설립되었다. 이곳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통합 중등학교이다. 벨파스트 협정 이후 통합 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북아일랜드 의회는 2022년 통합교육법(북아일랜드)(Integrated Education Act (Northern Ireland) 2022)을 통과시켰다. 결국 북아일랜드 종교단체의 노력은 '내면의 화해'와 '사회적 화해'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대표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남미 지역에서도 발견되며, 종교가 화해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러 연구자들의 '화해'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해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의 개입이 갈등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북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 평화를 위한 화해 사명을 가진 교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3. 한국 교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과 심화 배경

일제 해방과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는 건국을 위한 준비 조직들이 결성되었는데, 조만식 목사 중심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 김웅순 목사 중심의 ‘황해도건국준비위원회’, 이유필 장로 중심의 ‘평안북도자치위원회’ 등 다수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이들 조직은 정권 장악이 아닌 중앙 정부 수립까지 존속할 과도기적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과 충돌하며 조만식 장로가 이끈 조선민주당 등 기독교 민족주의 진영은 점차 탄압을 받게 되었다. 결국 지도자 다수가 월남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교회에 ‘반공’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영은, 2016: 876-882).

남한 정부는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고,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반공은 국가 운영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은 교회가 미국과 연계된 구호물자와 선교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반공과 복음주의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후 보수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과 유착된 구조 안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통일 논의조차도 반공의 틀 안에서 접근하였다(김병로, 2016: 222-231).

그러나 이러한 보수 중심의 이념 흐름과 병행하여, 한국 교회 안에는 진보적 신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참여적 흐름도 함께 형성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군사 독재 정권하의 인권 탄압과 민주화 억압은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신학은 억눌린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개인 구원을 넘어 구조적 죄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중심에 놓았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정치 민주화와 남북 화해, 인권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의 참여로 이어졌으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진보 교회 역시 정치화에 따른 이념 편향의 문제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진보 교회는 민족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의 아래 북한 체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한국 교회 내부의 이념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반공주의’와 ‘민중 중심 신학’이라는 상반된 이념 축을 동시에 품은 복합적 이념 지형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이는 남북문제, 통일 담론, 정치적 선택 등에 있어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반공의 신학과 해방의 신학, 국가 중심의 보수 신앙과 민중 중심의 참여 신앙이 병존하며, 그 이념 간 긴장은 단순한 신학적

입장을 넘어 갈등의 종교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선행 연구

북아일랜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와 과정에만, 집중하기보다 첨예한 분쟁 과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전재춘의 ‘북아일랜드의 정치 갈등과 합의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2013)에서 북아일랜드 분쟁 갈등을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집중하는 다른 논문들과 달리, 종교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협상 과정에 결렬될 위기에서 양측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등, 대화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분쟁 과정에서 교회의 다양한 역할을 찾아내고, 종교가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의 미, 영,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평화 구축에서 중재자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역사를 바꾼다’(Fitzduff, 김지향 역, 2000)은 북아일랜드의 시민 폭력 사태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 내 공동체 교섭을 위한 부서 마련과 공동체 교섭 위원회에 추진 과정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대화가 계속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퀘이커 교도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화 과정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알 수 있다.

폴 아서(Paul Arthur)는 ‘아일랜드의 평화 구축 과정: 신뢰의 문제’(2022)에서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을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닌, 긴 시간에 걸친 과정적 접근으로 봐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석, 협상, 그리고 지속적 실행이 반복되는 평화과정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 제삼자의 개입과 외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립적인 제삼자의 존재가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은 불안한 세계에 좋은 모범을 제공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구갑우의 논문 ‘아일랜드섬 평화 과정을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2013)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평화협정 체결 그 자체가 아니라, 협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갈등의 양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갈등 전환으로 이끌고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가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북아일랜드 평화 협상의 과정과 협정 이후의 실행 과정을 레더락의 갈등 전환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면서, ‘평화 과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

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평화 과정을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접근하며, 적대적으로 공존해온 두 공동체의 중심축(허브, hubs)들이 어떻게 새로운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을 형성하고 재생산해 가는가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전달자(messenger)’와 ‘중재자(broker)’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들이 어떻게 양극화된 두 공동체 간의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고, 나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시민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기성은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2022)에서,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의 기능을 분석 틀로 삼아,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분석, 평가한다. 그는 종교공동체, 종교 조직들이 분쟁 해결과 평화, 화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에서 종교가 분단과 아픔을 넘어서는 평화와 통일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우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사례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시사점’(2016)에서 남아프리카 분쟁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아일랜드는 정치적 협치 주의와 소수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소통방식을 보여주며, 벨파스트 협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갈등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적 통합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통합 교육의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교회의 사회 갈등과 이념 논쟁 속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한 선행 연구로는 김병로의 ‘한반도 통일과 평화 구축의 과제’(2014),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2019)이 있다. 한국 사회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구조화된 환경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남북 분단에 따른 이데올로기 갈등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며, 평화 이론과 전략을 기반으로 ‘피스빌딩(peacebuilding)’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학적 배경과 실천의 틀로는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배제와 포용』(2021)이 있다. 이 책은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를 다루며, 배제와 폭력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신학적 길을 제시한다.

또한 레더락의 『화해: 진실, 자비, 정의, 평화가 어우러지는 참된 회복』(Lederach, 김복기·허윤정 역, 2024)은 일반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영성 속에서 화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교회와 신자가 갈등과 화해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 전환』(Lederach, 박지호 역, 2018)에서는 갈등을 단순히 제거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구조를 창조할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서보혁의 『화해 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2019)는 화해 이론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주의적 우호 관계 형성에 화해가 어

면 효력을 가지는가를 밝히고, 교회 공동체가 화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적 접근을 기반으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수행한 갈등 중재와 화해 실천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의 분단과 사회적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존 폴 레더락의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교회가 갈등의 소극적 중재자가 아닌 능동적 화해의 주체로서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레더락의 이론은 단순한 갈등 관리나 종결이 아닌, 관계적 회복, 정의 구현, 구조적 변화, 문화적 전환을 통한 다층적 평화 구축을 지향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Justice)와 진실(Truth)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과정이 필요함을 평화 구축 과정을 위한 개념적인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평화협정(1998) 전후의 교회 및 종교단체의 중재 활동과 그 실천적 구조이며, 해당 사례를 통해 갈등 전환의 실제 적용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교회가 현재의 이념 갈등 및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신학적 정체성과 실천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해 갈등과 화해에 대한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예언자적 교회론,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포용 신학, 그리고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구조적 폭력과 평화 이론 등을 참조하여, 갈등의 복합적 차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교회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와 문헌 분석을 병행하며, 단순 비교를 넘어 갈등의 본질과 그 전환의 방향성을 신학적·실천적으로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V.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과 교회의 화해·중재 역할

1.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 나타난 교회의 화해 역할

1) 북아일랜드 분쟁 갈등의 원인

북아일랜드의 분쟁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유럽의 대표적인 내전형 갈등 사례로, 단순한 종교 대립을 넘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식민 지배의 유산, 정체성 충돌, 민족

주의와 통합주의 간의 대립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 아일랜드는 오랜 외세 침입의 역사 속에 1171년 헨리 2세의 침공 이후 영국의 지배하에 놓였고,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중심의 아일랜드에 종교적 탄압을 심화시켰다. 17세기 초 영국은 얼스터 지역에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 출신 개신교 이주민을 정착시켜 친영국 성향의 인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는 이후 북아일랜드의 종교 및 정치적 긴장의 토대가 되었다.

1801년 ‘연합법(Act of Union)’으로 아일랜드는 영국에 병합되었고, 가톨릭 공동체는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였다(황수환 2017: 34). 1922년 아일랜드 남부는 독립했으나 북부 6개 주는 영국령으로 잔류하면서 개신교 통합주의자(unionists)와 가톨릭 민족주의자(nationalists) 간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었다.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북아일랜드 가톨릭 공동체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과 무대응은 IRA(아일랜드 공화군)의 무장 저항을 재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72년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은 폭력 충돌을 격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오기성, 2022: 19).

약 30년간의 분쟁으로 3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불신에 빠졌다. 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은 갈등 종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는 화해와 공동체 재건을 위한 평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앨런 D. 팔코너(Alan D. Falconer)는 개신교가 ‘포위 심리(siege mentality)’, 가톨릭은 ‘강압 심리(coercion mentality)’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심리는 역사적 상처와 결합하여 가톨릭 공동체에는 ‘희생 신학(victim theology)’, 개신교 공동체에는 ‘선민의식 신학(theology of the elect people)’이 형성되었고, 이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도 활용되었다(Alan D. Falconer, 1990: 274-276 ; Steve Bruce, 1989: 68-69).

결과적으로 종교는 신앙을 넘어서 정치적 정체성 형성과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상호 간 신학적 프레임을 통해 상대를 위협적으로 간주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교회 간 소통이 단절되고, ‘자폐적 관계(autistic relationship)’가 고착되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도 타 교파에 대한 배타적 정체성 강화와 종교 내러티브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종교 담론 속에서, 평화를 위한 교회 지도자들과 여성 종교인들의 초기 논의는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2) 평화 구축(Peace building) 과정에 교회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중재 역할

마리 피츠더프 (Mari Fitzduff)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 이전에는 정치적 대화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공동체의 차이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조차도 공식적인 대화 외에는 어떤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갈등 상황이 신페인당과 IRA의 준군사적 폭력과 관련되어 있

였기 때문에 정부와 반대 정당들은 대화를 단절한 상태였다(Fitzduff, 김영수 역, 2000: 298-299).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웨이커 교도들이 대화 과정을 주도하면서 교착 상태의 정치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수의 개신교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 신페인당과 은밀한 대화 창구를 열었고, 1993년 4월 10일 존 흄(John Hume)과 게리 아담스(Gerry Adams)가 성직자의 중재로 처음 공식 회동을 하게 되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1994년 1월 19일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신페인당 관계자의 국영방송 출연을 금지한 ‘법 조항 31’을 철회하고, 8월 31일에는 IRA가 절대적 휴전을 선언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평화적 전환에는 가톨릭 신자인 모니카 맥 윌리엄(Monica McWilliams)과 개신교 신자인 펄 사가(Pearl Sagar)의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말라키 커런(Malachy Curran)은 소수 정당이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며, 모니카 맥 윌리엄에게 경의를 표하였다(전재춘, 2014: 149-151).

가톨릭 통합 주의자와 개신교 민족주의자 여성들로 구성된 북아일랜드 여성 연합(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은 죄수 석방과 무장해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가족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평화를 위한 과제로 전환하여, 종교적 연합을 통한 소수 정당을 결성하고 다양한 평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어리드 맥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와 베티 윌리엄스(Betty Williams)는 그 대표적 인물로,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였던 이들은 각각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로서 IRA 테러로 인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비폭력 평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치 및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폭력 없는 미래를 추구하며 ‘Peace People’을 창설하였다(전재춘, 2014: 181-182). 이러한 활동은 북아일랜드 평화운동에 있어 기독교 여성들의 선구자적 기여를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평화협정이 첨예한 대립으로 결렬될 위기에도 끝까지 대화의 자리에 서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평화협정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북아일랜드의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족적 분단의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교파주의를 넘어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화해 공동체의 노력에서 일어난 코리밀라(Corrymeela)라는 화해 공동체의 계속된 사역의 열매로 볼 수 있다. 코리밀라 화해 공동체는 1965년에 설립되어 북아일랜드에서 종교적·정치적 차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신앙과 기도로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코리밀라 공동체는 화해를 영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교회가 화해의 대리자, 중재자로 서야 한다고 본다. 설립자인 레이 데이비(Ray Davey)는 196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포로의 경험을 통해, 화해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코리밀라 공동체 설립 이후 그 사명을 “차이를 받아들이고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화를 통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며 각자의 다양성과 상호 공존의 가치를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로 운영하였다(김경은, 2017: 272-273). 코시밀라 공동체의 영향으로 교회 지도자

들과 평신도 신자들도 교회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북아일랜드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운동에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가톨릭 통합주의와 개신교 민족주의 모두가 전쟁의 장기화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1976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평화의 사람들(Peace People)’이라는 단체가 등장하여, 준군사조직들에 대한 폭력 종식과 비폭력을 호소하는,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김정노, 2015: 197-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정치적 긴장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졌고, 시민들은 IRA의 무장 투쟁으로 인한 사상자 증가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경험하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8년부터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Labour Party)의 당수인 존 홈과 신페인당의 당수 게리 아담스 간의 비공식 대화가 시작되었다. 홈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족주의 세력을 확대하자는 아담스의 입장을 수용하며, 비공식적이거나 협상의 물꼬를 텃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개입을 약속하였고, 당선 후에는 신페인당 당수 게리 아담스를 백악관에 초청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북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중재 역할을 하였다(구갑우, 2013: 208-209). 또한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연방 상원의원을 북아일랜드 특사로 파견하여 향후 다자 협상의 가능성을 열도록 하였다.

한편, IRA는 ‘선 평화 정착, 후 무장해제’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1997년 5월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고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협상에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블레어 총리는 통합 주의자들에게 다수의 동의 없는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신페인당에는 비폭력 원칙과 협상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페인당은 점차 협상에 응하게 되었고, 1998년 4월 10일, 토니 블레어 총리, 모 모울람(Mo Mowlam) 북아일랜드 장관, 아일랜드 총리 베르티 아헌(Bertie Ahern), 신페인당 지도부 등 양측 대표들이 성(聖)금요일까지 이어진 밤샘 회의 끝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당일 오후까지도 IRA 무장 해제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 얼스터 통합당과 신페인당의 견해 수용을 통해 오후 5시에 공식 협정이 발표되었다(김정노, 2015: 229-230). 이 성금요일 협정은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양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지지를 얻었으며, 갈등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구갑우는 이러한 평화 구축이 가능했던 정치적 배경으로 ‘협치주의(consociationalism)’라는 정치철학을 제시한다. 이는 다원적·분열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권력을 분점하고,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공동 통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즉,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이 아닌, 권력 공유와 집단 간 타협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이

는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상할 때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구갑우, 2012: 213).

3) 평화협정 후(後) 평화 유지(Peacekeeping)를 위한 교회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중재 역할 변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1999년 12월부터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대한 직접 통치가 종료되고 권력 이양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1985년의 영-아일랜드 협정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아일랜드 헌법 제2조와 제3조의 공식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두 조항은 그동안 영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통합주의 진영 내 온건파인 얼스터 통합당(Ulster Unionist Party, UUP)은 개정에 동의했지만,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은 이를 거부하였다(구갑우, 2013: 212). 그러나 이후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무장해제가 지연되자, 권력 공유 정부는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투표 후에 이행되어야 할 영국 의회의 직접 통치에서 북아일랜드로의 권력 이양이 담긴 내용이, 2007년까지 긴 시간 동안 의회가 표류 상태로 멈추게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평화협정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북아일랜드 성금요일 평화협정은 처음부터 정치적 안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민족적·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안고 해결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하기 위해서는 상·하 하달식의 위계 중심 접근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 북아일랜드 성금요일 협정은 곧바로 실행되지 못했다. 불이행의 조건 중의 하나인 죄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자, IRA의 무장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까지 이 상황이 이어졌고, 영국 정부가 2000년 5월까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를 해산했다. 2001년 IRA 무장해제가 시작되었고, 영국 정부의 군대가 철수가 이루어졌다. 2003년 11월 선거에서 민주통합당(DUP)이 제1당으로 급부상하며, 1998년 성금요일 협정에 함께 서명하지 않았던 DUP 당수인 이안 페이즐리가 2006년 성앤드류 협정(St. Andrews Agreement)을 통해 신페인당과 함께 권력 공유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갈등과 난제가 있었으나, 이전과 다른 것은 북아일랜드 평화과정을 방해하던 주요 세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절대로 신페인당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안 페이즐리의 입장 변화가 모두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구갑우(2013, 216-219), 전재춘(2013: 162)은 갈등 전환적 접근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본다. 마리 피츠더프 평화 구축의 성공 여부보다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000, 310).

갈등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모임을 통해 비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공식 협상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신페인당의 게리 아담스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여성 단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중재 활동을 펼쳤고, 이안 페이즐리의 참여 또한 공동 정치 체제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은 평화를 이루려는 다

양한 국가에 유의미한 사례가 된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평화유지를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일랜드 문제의 근원은 하나의 지리적 공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상이한 정체성(identity)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두 정체성의 평화공존 가능성이 큰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1998년 평화협정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 교육과 상호 이해 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화 교육을 추진하였다(강순원, 2020: 4). 종파 분리주의 교육을 탈피한 통합 교육 모델은 가톨릭과 개신교 간 상호 이해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은 다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벨파스트 북부에는 아일랜드 학교 일치 연구소(Irish School of Ecumenics, ISE)가 설립되었다. ISE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있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공동 교육과정(shared curriculum)을 운영함으로써, 적대적 종파 공동체 간의 화해를 도모하였다. 1997년에는 ‘종파주의를 넘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후 교회의 평화 교육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를 통해 1998년 평화협정에 반영되었으며, ‘학교 공동체 관계 프로그램(School Community Relations)’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에는 ‘공유된 미래(A Shared Future)’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상호 문화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착되었다.

이처럼 북아일랜드에서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발전시킨 통합 교육 모델은, 한반도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비교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톨릭과 개신교 학생들이 ‘동질적 문화(theory of homogeneous culture)’에 기반한 공동 교육과정(shared curriculum)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간 것처럼, 한반도 역시 민족적 공통 가치(national common values)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이념 분단을 넘어서는 평화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강순원, 2019: 201).

2. 존 폴 레더락의 갈등 전환 관점으로 본 평화 구축하기

1) 갈등전환 이론에 따른 사회적·정체성 관계 전환

레더락은 갈등 전환을 갈등이 단순히 종식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적·관계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 접근법이라 본다. 그는 갈등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변화의 동력”이라는(Lederach, 2018: 17) 과정으로 수용하고 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등 해결(resolution)은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서, 뿌리 깊은 원인을 간과하기 쉽다고 본다. 또한 갈등 관리(management)는 갈등을 통제하려 하지만, 갈등을 느낀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레더락은 갈등을 보는 틀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의 렌즈로 보았던 것을, 전체로 보는 것으로 추측하지 말고,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다중 초점 렌즈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세 개의 각기 다른 렌즈를 제시한다. 먼저 직면적 상황을 바로 보는 렌즈, 드러난 갈등의 뒷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인 맥락을 보는 렌즈, 관점을 총체적으로 엮어낼 개념적 틀의 렌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을 ‘사건(episode) 그 자체’가 아닌 ‘관계적 흐름(pattern)’으로 보는 것이다. 즉각적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의 반복적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갈등 전환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본다(Lederach, 2018: 42-47).

개인적 차원: 개인의 태도, 감정, 인식변화를 포함하는 전인격적 영역을 포함한다.

관계적 차원: 사람들 간의 신뢰 회복과 의사소통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적 차원: 사회적 불평등, 차별, 억압 등이 사회·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패턴과 변화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원: 공동체의 정체성, 내러티브, 집단 기억의 변화 패턴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차원을 통해 갈등의 변환 순환고리를 과정-구조로의 변화로 보면서, 실제적인 적응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창조성과 참여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레더락의 갈등 전환 이론의 관점에서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에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과정과 중재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단순히 가톨릭과 개신교 혹은 국가주의자(Nationalist) vs 통합 주의자(Unionist)의 이분법적 대립으로만 보기 어렵다. 수백 년에 걸친 식민주의, 정체성의 억압, 정치적 차별, 경제적 혜택의 철저한 배제 등의 총체적 결과이다.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을 종식 그 자체만의 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등 전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총체적이고 사회 전체의 전환(transformation)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례라고 본다. 갈등을 ‘문제’, ‘사건’ 그 자체로 보기보다 사회적, 정체성적 관계의 패턴을 통해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갈등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

갈등 전환 이론에서 말한 관계 패턴의 시각에서 북아일랜드 분쟁을 위한 여러 해결책이 나왔고, 특히 1970-80년대 동안 수많은 평화 협상의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1973년에 서닝데일 협정(Sunningdale Agreement)도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이 정치적 타협만 시도하려다 보니, 통합 주의자들의 반발로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실패를 볼 때, 레더락이 북아일

랜드의 벨파스트 분쟁은 정체성 문제로 불거진 좋은 예(Lederach, 2018: 90)라고 보며, 해결 중심의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는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된 분쟁 속에서 갈등 전환의 모습이 벨파스트 협정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반대 진영에 있는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된 연합 사역과 비폭력 선언, 비밀 접촉을 시도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개인들의 행동은 관계적 차원으로 연결되어, 양 진영 종교인들, 시민사회가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의 활동을 통해 공동 예배,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평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벨파스트 협정은 불완전했으나, 일차적으로 전체 합의를 끌어낸 것은 구조적 차원의 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후에도 몇 년간 다시 정체된 상황이었으나, 이전처럼 격렬한 분쟁이 아닌 소모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든 진영의 권력 공유라는 구조적 차원으로 연결되어 합의제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후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서로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 희생자 담론에 관한 대화 시작과 각 공동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EU의 후원을 받아 ‘Peace 프로그램’까지 확대·발전되어 평화 구축을 세워가게 된 것이다.

특히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시사점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간 지도자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중간 지도자층에서 풀뿌리 지도자들에게 까지 연결·확대되어 간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체의 상처와 화해를 중시하며 예언자적 실천가로서 헌신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2) 갈등 전환을 통해 나타난 평화 구축을 위한 지도자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

레더락은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피라미드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세 수준(level)의 평화 지도자 그룹과 평화구축을 위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 렌즈(lens)를 통해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리더와 행위자들이 어떻게 층위별로 나누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피라미드의 세 가지 범주의 지도자는 고위층(Top-Level Leadership), 중간층(Middle-Range Leadership), 맨 아래층의 풀뿌리(Grassroots Leadership)이다. 레더락은 이 세 수준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림1의 왼쪽에는 지도자 유형을 설명하고, 오른쪽에는 각 유형 지도자의 평화 구축을 위한 행위 유형과 각 유형의 지도자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Lederach, 2012: 68-89).

그림1 평화 구축을 위한 행위자 및 접근 방식



출처: 존 폴 리더락,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2012) (Lederach, 2012: 68-74).

수준 1은 고위층 지도자(Top-Level Leadership)로서 주로 갈등 속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위 대표자로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국가원수, 장관, 군부 총수, 주요 야권 및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스컴을 통해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널리 알려져 있고(가시성, 정치적 위상이 높음), 국제기구나 강대국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평화 협상에 참여한다. 리더락은 이들 고위층 지도자는 제삼자 중재자나 외교적 개입 속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정전(停電) 또는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무 의제를 설정하고,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정치협상과 제도적 전환을 추진한다. 즉, 최고위급 협상과 합의 도출을 통해 전쟁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틀(framework)을 구축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접근 방식이다.

수준 2는 중간 수준 지도자(Middle-Range Leadership)로서, 공식 권력구조 밖에서 지역·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중간층 리더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교육·경제·보건·종교·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락은 “널리 존경받는 개인, 또는 교육, 상업, 농업, 혹은 의료와 같은 분야의 지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Lederach, 2012: 71)”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종교·

학계·구호단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물들을 지목하며, 대표적으로 NGO 지도자, 대학교수, 지역 명망 있는 성직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은 상위층 지도자들과 인적·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풀뿌리 기반에도 뿌리를 두고 있어 상·하위층을 잇는 교량(연결자) 역할을 한다.

중간 수준 지도자들은 힘의 위계보다는 사회적 신뢰와 관계망에 기반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식 협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비공식 활동을 할 수 있다. 레더락은 ‘중간에서의 확산적’(middle-out) 접근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 협상과 화해를 발전시켜 간다고 보았다. 실제 사례를 설명하면서 중간 수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 해결 워크숍, 갈등 해소 트레이닝, 평화위원회 구성 등의 비공식적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충돌 집단 간 신뢰 형성과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서로 적대하는 양 측의 중간 수준 지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워크숍에서는 갈등 원인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질 협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 이처럼 중간 수준 지도자는 상위와 하위 사이에서 연결자로서 작동하여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레더락은 평화구축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를 1990년대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과정’, ‘발칸 평화 프로젝트(Balkans Peace project)’와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적용된 사례로 설명한다(Lederach, 2012: 78-83). 특히 북아일랜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트레이닝 접근방식이 실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파벌로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일랜드식 접근 방식 및 실험을 제시한 노력이었다고 밝힌다.

수준 3은 풀뿌리 지도자(Grassroots Leadership)로서,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대중들로 구성되어 있다. 토착마을 어른, 공동체 활동가, 교육자, 지역 NGO 회원, 보건·구호 활동가, 피난민 수용소 리더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분쟁 직격탄을 맞은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식량·의료·안전 등의 일상적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고통과 편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며(생존·안보형 의식), 동시에 지역 내 갈등의 뿌리 깊은 상처와 분열을 잘 파악하고 있다.

풀뿌리 평화 지도자들은 주로 일상적·사회적 치유 방안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평화위원회 구성, 갈등 완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혹은 집단 상담·심리 치유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회복을 돕는다. 레더락은 이러한 풀뿌리 지도자의 접근 방식을 ‘밑에서부터 위로(bottom-up)’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 차원의 평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여러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스웨덴의 읍살라 삶과 평화연구소(Life and Peace Institute of Uppsala)에서 개최한 국제 소말리아 리소스 그룹에서 재확인되었다. 이 리소스 그룹은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유엔의 화해 업무를 자문하기도 했다(Lederach, 2012: 88). 이처럼 풀뿌리 평화구축은 주민 대 주민 수준

의 신뢰 재건과 사회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며, 일상 속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의 장기적 해결 기반을 다진다.

레더락은 이 세 수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에 효과적인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상위 수준의 정치적 합의와 제도 마련, 중간 수준의 네트워크와 워크숍을 통한 신뢰 형성, 하위 수준의 공동체 회복과 대화 활동은 모두 상호보완적이다. 최상위층의 공식 합의와 명령이 풀뿌리까지 전달되어야 하고, 동시에 풀뿌리의 목소리가 중간층을 거쳐 최고 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전반적 갈등해결과 지속 가능한 화해가 가능해진다. 이 관점은 전통적 위계적 협상 방식과는 달리,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동원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 평화 구축 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3.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위한 교회의 화해 역할

1) 갈등 전환의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교회의 이념 갈등에 대한 재인식

갈등을 ‘문제’로만 규정하고 반대적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된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을 향해 나갈 전환의 기회로 본다면,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어두운 상황을 또한 새로운 해석의 틀에서 조망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실천을 통해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맹 퇴치와 자각을 촉진하여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단지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불의한 구조 속에서 정의와 자유를 향한 전환의 움직임이기도 했다.

기독인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공산주의와의 연합전선을 구성해 보는 실험적 경험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신학적·사회적 자각의 틀을 형성하며 남한 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영적 토대를 구축해 갔다.

최근의 탄핵 정국에서 촉발된 대립 역시 단순한 정치적 의견 충돌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온 이념적 불신, 역사 인식의 차이, 지역감정, 세대 간 단절이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관계 회복의 중재자’로서 화해의 공간을 여는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갈등을 단순한 충돌이나 분열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닌, 관계의 질과 사회

구조의 정의 수준을 드러내는 징후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회는 갈등을 제거하거나 단순히 중재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조적 불의와 단절된 관계를 평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전환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보수 교회는 오랜 기간 자유 민주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진보 교회는 평화, 인권, 사회 정의를 신학의 중심에 두며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추구해 왔다. 이제는 서로의 신학적 진정성과 역사적 맥락을 경청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재정립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사상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경청 속에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창출할 기회로 삼자는 제언을 올린다.

교회의 예배당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고와 신앙을 나누는 대화와 참여의 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배당은 설교자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신앙의 중심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과 삶의 질문을 나누고, 상호 경청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담론의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는 갈등 중 하나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간극이다. 한국 교회 역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갈등 전환적 시각에서 볼 때,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신음이며, 고통의 언어이다. 따라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의사결정과 참여 구조를 포용적이고 공동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 전환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 들려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관점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관계의 재형성, 구조의 재구성, 공동체의 재탄생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갈등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교회형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념적 대립을 단순한 분쟁이 아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구축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공동체 세우기’, ‘평화를 위한 대화 프로그램’, ‘소그룹 기반의 안전한 공간 만들기’ 등의 워크숍과 훈련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적 회복과 화해를 지향하는 교회를 통해, 치유와 전환의 중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통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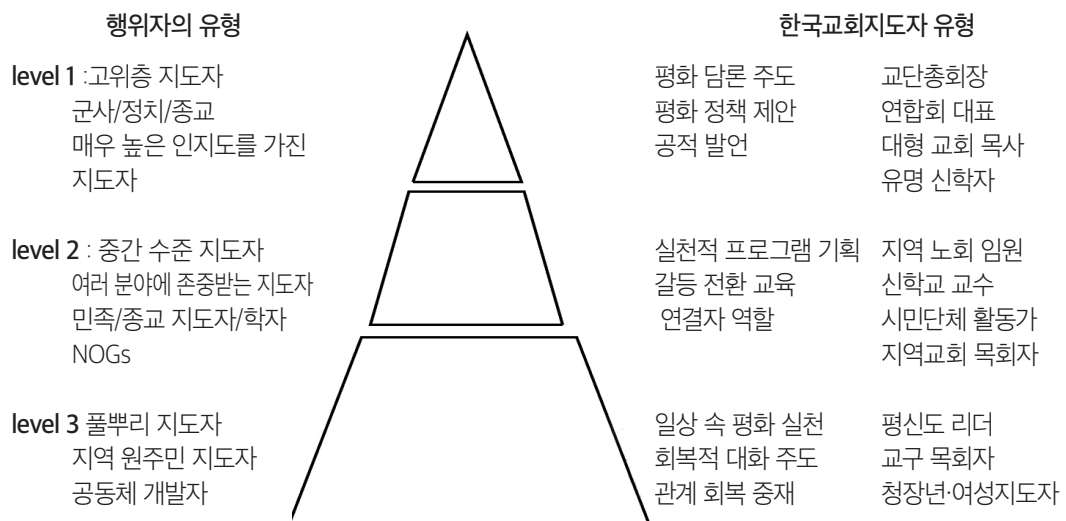
2)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적용해 본 화해와 평화 구축의 리더십

평화 구축을 위한 리더십은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단순한 리더십의 지휘 구조의 확보나 정치적 전략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신뢰와 회복의 구축, 공동체 내(內) 포용과 경청의 태도를 중심으로 ‘관계적 리더십’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리더력은 이러한 리더십은 위계적 질서 구조보다 수평적 상호작용과 공동체를 기반한 소통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는 위로

부터 아래의 명령 체계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관계 구축과 신뢰 형성이야말로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변환시키는 핵심이라고 한다(Lederach, 김동진 역, 2012: 74-78).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계층들의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의 복잡성을 조율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갈등 상황에 놓인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위한 리더십을 수용한다면, 사회 갈등에 휘둘리는 소극적 주체가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전환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와의 소통,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포용하는 문화 형성,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교회는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중재자적-참여적’ 리더십을 갖춘 평화 공동체로 거듭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림2. 갈등 전환의 관점을 적용한 한국 교회의 중재자와 평화 구축의 다양한 접근 방식



본 연구는 존 폴 레더락이 제시한 평화 구축 리더십 이론을 한국 교회의 현실에 적용하여, 갈등 전환 전략을 실재화할 수 있는 중재자 유형과 역할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였다. 레더락은 갈등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리더십을 고위층(top-level), 중간 수준(middle-range), 풀뿌리(grassroots)로 구분하고, 각 수준의 리더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한국 교회 지도자 유형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화해 리더십의 한국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Level 1 지도자는 한국 교회에서 교단 총회장, 대형 교회 담임목사, 연합회 대표, 혹은 공적 신학자로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설교, 칼럼, 성명서, 언론 기고, 국

제기구 및 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평화 담론을 형성하고, 갈등 이슈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적 신학과 사회적 신앙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단지 교회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정의·화해·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남북 관계나 사회 통합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나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니므로, 고위층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은 중대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둘째, Level 2 지도자는 한국 교회에서 지역 노회 임원, 신학교 교수, 기독교 시민사회단체(NGO) 활동가, 지역교회 목회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복잡한 갈등의 양상 속에서 신학과 실천을 연결하고, 대화와 화해를 위한 실제적 공간을 조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교단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역사회 포용 대화 모임, 탈북민·이주민·청년 등 소외된 이웃과의 소그룹 만남 등을 통해 관계 회복적 실천을 선도하며, 이러한 영향력을 Level 3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셋째, Level 3 지도자는 일상에서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리더들로, 회복적 대화와 화해 실천의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갈등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과 분열을 직면하고,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접근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 평신도 리더, 교구 목회자, 청년·여성 리더,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역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청년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화해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수준의 리더십 분류는 단순한 위계적 구조의 구분이 아니라, 평화 구축의 다층성과 통합성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각 수준의 지도자들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갈등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왔기에, 이러한 리더십 모델을 통해 보다 구조화된 평화 실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유형화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는 각 수준에 적합한 리더십 훈련과 화해 사역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화해의 영성 안에서 재정립하고, 사회적 갈등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성과 실천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에서 방관자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평화 공동체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과 반성을 바탕으로,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서 교회가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정치적 양극화, 남북 관계 긴장 강화 등의 복합적 상황 속에서 이념적 갈등이 일상과 신앙, 공동체까지 깊이 스며들어 영향을 준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갈등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침묵함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과 반성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오랜 시간을 이념적,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북아일랜드의 평화 구축 과정을 성금요일 협정 전후를 살펴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각 시기의 중재자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존 폴 레더락의 갈등 전환 이론을 접목하여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 나타난 비폭력 평화 과정을 위한 중재자들의 역할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갈등은 단순히 문제 해결, 전쟁 종식 그 자체만이 아닌, 관계와 구조, 문화의 전환을 통해 평화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축하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 전환 이론을 한국 교회 맥락에 적용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중재자로서의 창의적 평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탐색하며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숫자적으로 가장 많고 다양성을 지닌 풀뿌리 지도자들을 위한 ‘화해 프로그램’과 ‘비폭력 갈등 중재자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다양한 연령층이 정기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공동의 주제를 듣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바로 신앙 공동체, 특히 교회이다. 한국 개신교는 약 천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동체로,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풀뿌리 지도자들이 갈등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상황에 대해 경청과 동행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치유적 사역이 개인 상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현실은 교회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전문 상담자를 통한 치유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내에는 심방 제도와 소그룹 상담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교역자(중간 지도자), 상담 리더(중간 지도자), 상담자(풀뿌리 지도자)가 한 공간에서 경청, 나눔, 회복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재 역량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둘째, 관계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 내(內)에서 ‘회복적 정의 서클(Restorative Justice Circle) 을 통

한 기성세대와 청년들 간의 소통 구조를 제안한다.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개념은 “누가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처를 입었으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이 서클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하게 둘러앉아 상호 경청을 통해 신뢰와 공동 책임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서클은 특히 청년 세대의 탈 교회 현상이 심화하는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신앙 공간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는 단순한 갈등 해소가 아닌, 관계의 재형성과 공동체적 신뢰 회복이라는 평화 구축의 핵심 원리를 실천하는 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셋째, 구조적 차원에서 교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라는 신학적 원리에 비추어볼 때, 평신도(폴뿌리 지도자)와 담임목회자(고위층 지도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은 한국 교회 구조의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중대형 교회의 경우, 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주일 메시지조차 일방적 하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형 교회 운영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계층 간 대화의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과 당회원, 여성 리더와 장년 리더, 선교회와 교회 리더십 간 세대·계층 간의 대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와 ‘이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 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갈등 현안으로 ‘성소수자 이슈’, ‘탈북민 정착 문제’, ‘동성애 논의’,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비전의 다양성’, ‘북한 관련 담론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회의 내적 대화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때, 갈등은 창조적 실천의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양한 교단 간 일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나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와 같은 초교파적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최고 지도자’, ‘중간 지도자’, ‘폴뿌리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정의 훈련, 회복 예배,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 회복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차원은 교회 내에 갈등을 고착시키는 언어, 전통, 상징 체계를 전환함으로써 화해의 문화를 창출하는 영역이다. 최고 지도자는 신학적으로 포용과 화해,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며, 중간 지도자와 함께 지역 연합 예배나 성령강림절, 성찬식과 같은 상징적 예식의 기획을 통해 화해 기도회 및 나눔의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다. 폴뿌리 지도자는 절기 예배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갈등의 문화를 화해의 문화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문화 기획을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

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매주 드러지는 예배가 단순한 의례를 넘어, 회복적 중재자로 훈련된 성도들을 사회로 파송하는 살아 있는 화해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평화와 화해의 비전을 담은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재자의 삼각 구도는 갈등 전환의 네 가지 차원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한국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롭고 포용적인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16).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6(4), 461-499.
- 강순원 (2019). 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평화·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점. **평화문제연구소**, 31(2), 175-211.
- 강순원 (2020).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종파공동체 간의 관계 조성을 위한 평화교육전달과 정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5(3), 1-47.
- 강종일 역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Galtung, Y. V.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서울: 들녘.
- 구갑우 (2012).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28(3), 189-227.
- 구갑우 (2013). 아일랜드 섬 평화 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3), 189-228.
- 김경은 (2013).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 **신학과 실천**, Vol. 36, 447-478.
- 김경은 (2017).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공동체 연구: 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의 화해영성. **신학논단**, 89(9), 47-75.
- 김동진 역 (2012).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Lederach, J. P. (2005).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서울: 후마니타스.
- 김병로 (2014).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평화학연구**, 15(1), 7-27.
- 김병로 (2019).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 **통일과 평화**, 11(2), 33-74.
- 김복기·허윤 역 (2024). **화해: 진실, 자비, 정의, 평화가 어우러지는 참된 회복**. Lederach, J. P. (2014). *The Journey Toward Reconciliation*. 서울: 생각비행.
- 김정노 (2015).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서울: 늘품 플러스.
- 김지향 역 (2000). 역사를 바꾼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Fitzduff, M. (2002). Beyond Violenc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n Northern Ireland.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0(1), 292-314.
- 박세혁 역 (2021). **배제와 포용**. Volf, M. (1996). *Exclusion Embrace*. 서울: IVP.
- 박지호 역 (2018).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전환**. Lederach, J. P. (2003). *The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논산: 대장간.
- 서보혁 (2019).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연구원**, 19-05.
- 오기성 (2022).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14, 9-42.

- 이우영 (2016).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북아일랜드의 사례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시사점. **통일인문학**, 67(0), 5-39.
- 폴아서 (2022). 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신뢰의 문제. **경계연구**, 1(1), 162-189.
- 황수환 (2017).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4), 33-64.
- Barth, K. (1956). *Church Dogmatics, Volume IV, Part 1: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Edited by G. W. Bromiley & T. F. Torrance. London &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 Bruce, S. (1989). *God Save Ulster!: The Religion and Politics of Paisley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lconer, A. D. (1990). The Role of Religio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Bulletin of Peace Proposals*, 21(3), 274-276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67-191.

북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이 한국 교회에 주는 함의-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의 갈등 전환 모델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the Northern Ireland Peacebuilding Process for the Korean Church: Focusing on John Paul Lederach's Conflict Transformation Model

강 석 분 (숭실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북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을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의 갈등전환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한국 교회의 평화 중재자 역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종교 정체성에 기반한 북아일랜드 갈등의 맥락 속에서 교회와 중재자들이 수행한 관계 회복과 구조 전환의 실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최근 심화된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의 중재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신학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을 단기적 해결이 아닌 관계와 구조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레더락 이론의 관점을 한국 사회와 교회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며, 교회가 평화 구축의 화해 신학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회의 참여적 리더십, 회복적 정의 실천, 대화 촉진 플랫폼 구축 등의 구체적 전략을 통해, 한국교회가 긍정적 평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갈등 전환, 한국 교회의 평화 중재자 역할, 평화 구축, 관계와 구조의 전환, 화해